

건강식품 등에 연간 5조원 지출

대한보완통합의학회 전국 3천명 대상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 증진을 위해 보완대체요법에 연간 5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보완통합의학회(회장 윤방부)는 지난 5~6월 전국에서 3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통해 한국인의 보완대체의학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67%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전체국민으로 볼 때는 약 5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1인당 연간 평균 11만원에 해당됐다.

학회는 만약 한방요법까지 보완대체요법으로 분류할 경우 국민의 75%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건강증진을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20%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피로, 혈액순환 장애 등의 질환 예방이나 치료목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은 건강기능식품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비타민 및 미네랄 43% 등이었다. 특히 인삼과 홍삼 및 종합 비타민류의 섭취가 높았으며, 청국장, 유산균류, 글루코사민 등의 섭취량도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기 위해 월 평균 7만원, 연 평균 84만원 을 지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국민으로 볼 때는 약 40조에 해당했다.

포천중문의대 차바이오메디컬센터 최준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볼 때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보완대체 요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병원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가까울 정도였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에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06. 8. 25 / 연합뉴스 -

프로폴리스가 궁금해요

Q : 프로폴리스제품에는 알코올이 첨가된 것과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이 두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프로폴리스는 불용성물질로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에탄올(알코올) 추출법과 수용성 WEEP공법에 의한 제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등에서의 수입품의 대개 98% 이상이 에탄올을 함유한 제품으로, 에탄올 함유제품은 물에 타 보면 유유 빛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고 물위에 노란 밀랍이 뜨게 되며 향도 역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에탄올 함유제품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섭취하기에 불편하며 물에 뜬 노란 밀랍은 물이나 세제에 씻기지 않기에 여러 불편함이 많을 수 있고, 프로폴리스가 지닌 항균, 항산화 효능을 피부 외상에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상처부위가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강한 쓰라림뿐 아니라 웃이나 기타 침구 등에 묻을 경우 일반 비누나 세제로는 제거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기가 불편한 점을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WEEP 공법은 1차 에탄올로 추출하여 프로폴리스의 핵심유효성분인 후라보노이드를 추출해낸 후에 에탄올은 휘발시키고 6각수 정제수로 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수용성 비타민과 무기질을 다시 한번 추출한 2차 공법으로 만들어진 수용성 제품으로, 수용성 제품의 특징은 물에 타보면 우유 빛이 아닌 프로폴리스 고유칼라가 그대로 유지되며 물위에 노란 밀랍이 뜨지 않고 그 어떤 음료나 물에 완전히 녹는 특징과 마일드한 향으로 어린아이부터 향에 민감한 노약자나 중병질환자들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좀 더 확실한 확인은 알코올 함유제품에 불을 붙여보시고, 수용성 제품에 동시에 불을 붙여 보면 에탄올 함유제품은 불이 활활 타나, 수용성 제품은 불이 붙지 않는 무알코올 제품임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어떤 아기는 먹이니까 열이 난다고 하는데 이럴 땐 중단해야 하나요?

A : 프로폴리스는 인체 내에 직접적 발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프로폴리스 때문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시다면 프로폴리스 섭취를 중단했을 때 열이 나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프로폴리스 중단 시에도 열이 그대로 난다면 이는 프로폴리스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개 아이들의 열이란 몸에 염증이 생길 경우에 가장 많이 열이 발생되므로 프로폴리스를 염증류 질환의 보조제로 섭취시켰다면 발열되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열의 원인은 염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열되는 것이지 프로폴리스가 발열의 원인이 아니므로 정확한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시어 프로폴리스를 보조제로 함께 섭취시켜 주신다면 빠른 건강개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프로폴리스 자료〉

‘프로폴리스 · 벌꿀의 과학적 재조명’

10월 27일 심포지움 개최

‘프로폴리스 · 벌꿀의 과학적 재조명’ 심포지움이 10월 2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2004년도 농림부지원 농림기술개발과제인 “국산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무알콜 수용성 건강기능식품개발과 임상실험을 통한 항산화 및 면역증강효과의 검증”을 공동 수행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울아산병원, 한국양봉조합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식약청의 기능성식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폴리스의 항균, 항산화작용에 대한 동물실험과 인체실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며 특히 내성균에 대한 프로폴리스의 효능이 집중 조명됩니다. 많은 참관 있으시기 바랍니다.

□ 행사주제 : “프로폴리스 · 벌꿀의 과학적 재조명”

□ 개최일정

- 2006년 10월 27일(금) 13:00 ~ 17:00

◦ 발표내용

프로폴리스의 항균 및 항산화의 최신 동향(김영전교수, 중부대)

국산 프로폴리스의 항균 및 내성균 활성 검증(허용갑소장, 서울프로폴리스)

국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효능 검증(조성기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에 대한 임상실험(진영수교수, 서울아산병원)

벌꿀의 헬리코박터균 억제작용(이명렬박사, 농촌진흥청)

□ 개최장소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영화관(국제 회의실)

□ 주최 및 후원

- 주최 :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양봉농협조합, 한국프로폴리스연구회

- 주관 : 서울프로폴리스(주)

- 후원 : 한국양봉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대전시첨단산업진흥재단BT사업단

□ 참가예상인원

- 전국 양봉 농가, 업계, 산업계, 학계 약 500 여명

□ www.propolis365.com와 www.kprc.re.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불법 허위광고한 8곳 적발

서울식약청, 질병치료 효능효과 과대광고 혐의 포착

서울지방식약청은 20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업소를 특별 기획단속 결과 8개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는 프로폴리스, 칼슘, 비타민 등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곳들이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곳, 프로폴리스제품, 칼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암억제, 갱년기 장애를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한 6곳 등이다.

또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업소의 경우 홍삼음료 및 혼합음료 등을 항암작용, 고혈압, 당뇨병,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작용 등으로 허위과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표시사항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06. 9. 20 / 데일리팜 -